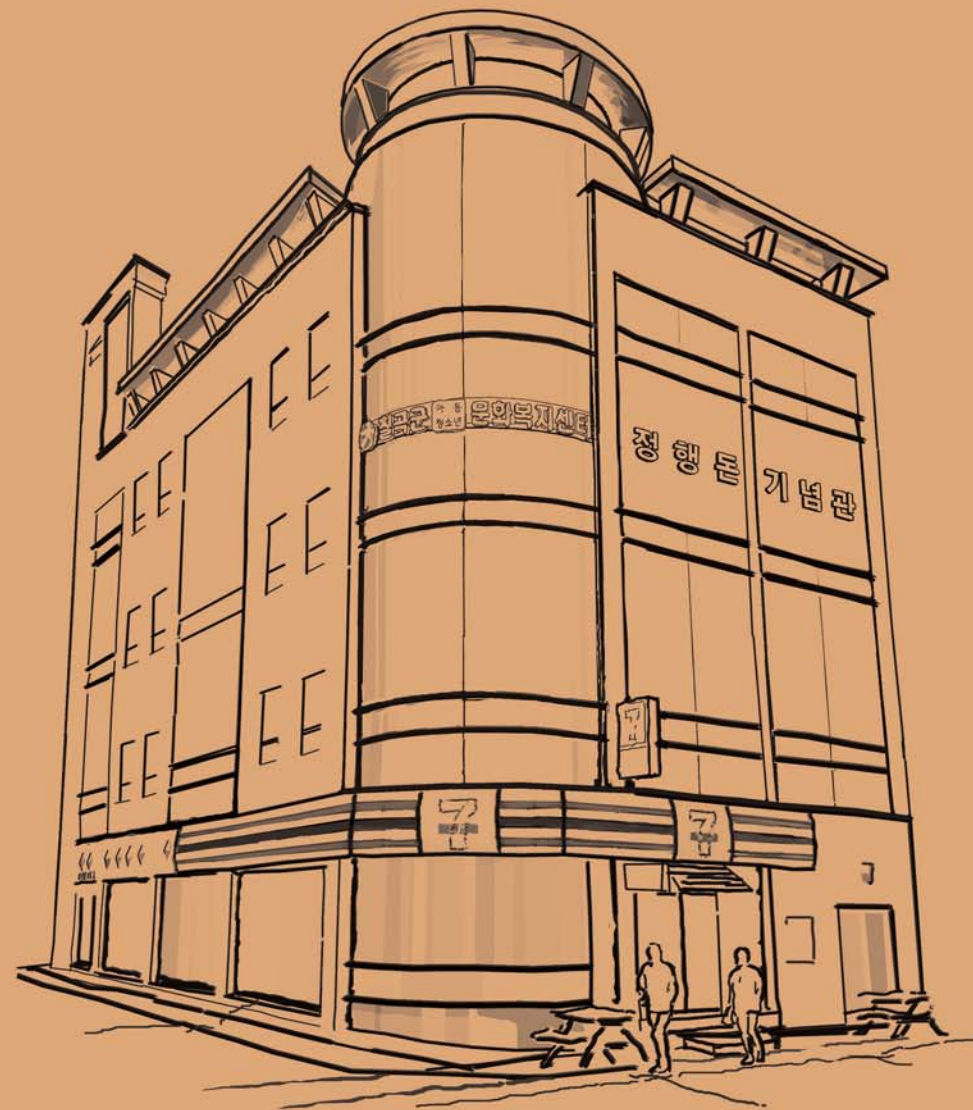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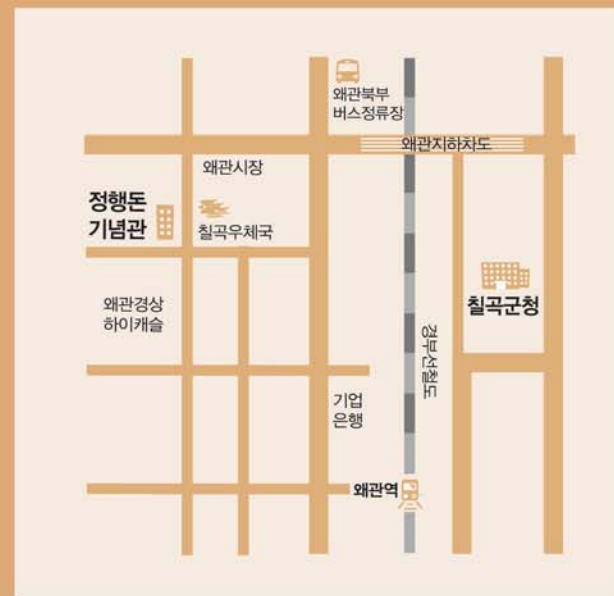




칠곡군립 정행동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관람시간 : 9시~18시 (휴관:주말, 공휴일)
전화 : 054)971-0950 팩스 : 054)971-0952



애국지사 교육자 정행돈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사말

애국지사이시며 교육자이신 정행돈 선생의 후손들께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시고 쾌척하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구성원을 대표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행돈 선생께서는 평소 청소년에게 큰 애정을 갖고 계셨으며 '어려운 청소년을 많이 도와주랴'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에 이런 유지를 받들어 후손이신 정은규 몬시뇰과 정신규, 정오규, 정완규 형제들께서 정행돈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는 정행돈 장학기금을 우리대학에 쾌척하셨습니다.

이러한 장학기금 조성은 정행돈 선생 집안과 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오랜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행돈 선생의 막내 동생이신 정행만 신부와 우리대학의 전신인 효성여자대학 설립자이신 전석재 몬시뇰과는 사제 서품동기이시며 깊은 친분이 있었기에, 효성여자대학 설립에서부터 정행돈 선생께서는 전석재 몬시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특히 정행돈 선생 장남이신 정은규 몬시

뇰께로 이어져, 정은규 몬시뇰께서는 2004년 시몬장학회를 설립하셔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본교 학생 4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과 추모비를 기증하셨고, 본교 안중근 연구소 설립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국지사이시며 교육자이신 정행돈 선생과 그분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며 정행돈 선생과 후손들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랑과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 정 우



정재문 선생
1876-1954

정재문(鄭在文) 선생은 1876년 10월 2일
대구에서 경주 정씨 양경공파(良景公派) 63

대 정용휘(鄭龍輝)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자
(字)는 순경(舜卿)이고 1892년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920년 왜관에 와서 남일정미소(南一精米
所)를 차렸으며 낙동강과 경부선 철도가 만
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수완과 성실성으로 왜관 제일의 부자가 되었
다. 그러나 그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
며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독립
운동과 불우 이웃 돕기에도 힘썼다.

1922년 자기 집에 천주교公所(公所)를 열
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신자가 많아지자
1928년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 왜관 성당을
건축하고 소화여자학원(小花女子學院, 현 純
心中學校) 설립에 기여하여 3대 원장이 되었
으며, 1945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
을 설립할 때 문중 토지 64,814평을 기부하
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불우 이웃 돕기에 희
사한 뒤 1954년 7월 9일 서거하였다. 부인
최질라(崔秩羅) 슬하에 6남 1녀(行國, 行本,
行模, 行淑, 行敦, 行祿, 行萬)를 두었다.



남일정미소



가실(佳室) 성당

정재문 선생은 1921년 왜관곡물
상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인들의 횡
포에 맞섰으며 두 아들의 독립운동
은 물론, 중국에서 활약하던 독립
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5년 대홍수로 기근이 발생하자
칠곡기근구제회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제에 힘썼으며, 1929년 큰 가뭄
으로 많은 빈민이 발생하자 대대적
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준공된 가실 성당은 영
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
으로 오래된 성당이다. 그 당시 왜
관에는 정재문 선생이 설립한 천주
교 공소는 있었지만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큰 축일에는 왜관 신자들은
가실 성당으로 가야 했다.

가실 성당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재문 선생의 세례명이 성당 종에
새겨져 있다. 대구 교구 설정 100주
년(2011)에는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성당 경내에 스승예수공원이
조성되고 큰 예수상이 세워졌다.



왜관 성당



정행본 선생(1899-1981)

정재문 선생은 1928년 토지 1,895평
을 자비로 마련하고 공사비 대부분을 부
담, 영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
으로 큰 고딕 성당을 세웠다. 비록 공소
에 건립하는 성당이지만 장래 큰 신앙 공
동체가 될 것을 예견하여 가실 성당보다
크게 지었으며, 총회장이 되어 전국에서
이름난 모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당시
왜관 신자들은 정재문 총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신심단체 활동은 물론 여러
교회 사업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차남 정행본(鄭行本) 선생은 1928년
남일정미소 전무로 있으면서 왜관 성당
신축 공사를 감독하였고 성당에서 교리
를 가르쳤으며 훗날 왜관 성당 총회장이
되어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5년 8월 24일 순심교육재단 4대
이사가 되고 1962년 교육 공로자로서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68년 칠곡문화원을 설립, 초대 원장
을 지냈으며 칠곡군 여러 기관의 자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
하였다.



왜관 성당 청년회 발족

1936년 왜관 성당에 20대 남자로 구성된 안드레아 청년회가 발족되었다.

초대 회장은 4남 정행돈 선생이었다. 그는 회장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비밀히 전개하였다.

1937년 10월 2일 대구 교구장 안세화(安世華) 주교(1875-1938)가 왜관 성당을 공식 방문하였다.



안세화 주교 왜관 성당 방문

왜관 성당은 이 지역 최초의 붉은 벽돌 건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경이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초대 주임 여동선(呂東宣) 신부(1879-1949)는 정재문 선생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제단 위 오른쪽 벽에 그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상을 세우고 성당 중에는 그의 부인 최 오티리아가 “종의 대모”라고 새기게 하였다. 정재문 선생은 왜관 성당 3대 주임 이동헌(李東憲) 신부(1900-1950)가 1936년 5월 15일 개원한 소화여자학원을 재정적으로 도왔으며 3대 원장이 되어 여성 교육에도 힘썼다. 소화여자학원은 이 지역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소화여자학원 4회 졸업생(1942)



왜관 성당 내부



소화여자학원 수업



소화여자학원 수예 수업



소화여자학원 초창기 건물



소화여자학원 조희



정재문 선생 부부 (1945)

정재문 선생은 1954년 7월 9일 서거하였다. 당시 왜관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는 평소 자기 밥상에 두 가지 이상 반찬을 놓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지만, 불우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희사하였기 때문이다.



정재문 선생 장례행렬 (1954.7.13)



정재문 선생 장례식 (1954.7.13)



정행돈 선생
1912-2003

정행돈(鄭行敦) 선생은 1912년 8월 22일 왜관에서 정재문 선생의 4남으로 태어났으며 천주교 세례명은 미카엘이다.

1931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가인 만형 정행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독립운동에 투신, 항일 동맹 휴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31년 5월 17일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자고등학교) 출신 최재경(崔在慶)과 결혼한 후, 고향에서 만형이 설립한 동창학원(同昌學院)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창기(李暢基), 이두석(李斗錫), 박몽득(朴夢得) 등과 함께 왜관청년동지회를 조직, 독서회 명목의 비밀 결사 성진회(�澄進會)를 통하여 농촌 계몽과 한글 강습을 하다가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 1개월 동안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1941년 석방되어 소화여자학원 3대 원장인 부친의 교육 사업을 도왔으며 조국 광복 때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1945년 조국 광복 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상임 이사로서 토지 4,833평을 기부하였으며 1947년 문교부 교

육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50년 7월 1일 순심중학교 5대 교장이 되어 11년 동안 봉직하면서 1952년 순심고등학교를 설립, 초대 교장을 겸하였다.

1950년 12월 불우 이웃을 위하여 토지 7,140평을 자비로 매입, 창마묘지를 조성하여 왜관 성당에 기증하였고 1956년 왜관 삼청동 한센인 복지 시설 건립에 기여하였다.

1961년 8월 23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 순심교육재단 운영권을 이양하였다.

1961년 재건국민운동 칠곡군 회장에 추대되어 6년 동안 봉사하면서 칠곡군 여러 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1964년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 교육 기관 명성고등공민학교(明星高等公民學校)를 설립하여 3년 동안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90년 독립 유공자로서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2003년 8월 19일 서거,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부인과 합장되었다. 슬하에 3남 4녀(銀圭, 松圭, 竹圭, 信圭, 情惠, 五圭, 完圭)를 두었다.



왜관공립보통학교 학생 시절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시절



1930년대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1899년 설립된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는 그 당시 전국 3대 명문 고등보통학교(서울, 평양, 대구)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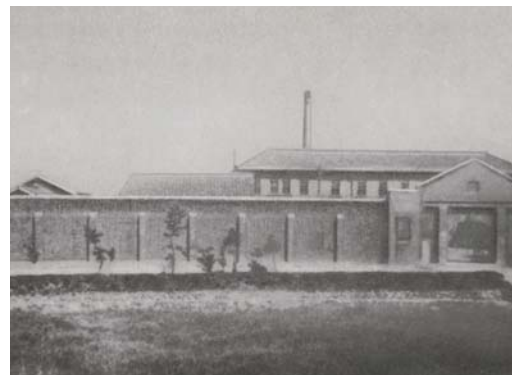
3.1만세운동 이후 이 학교 학생들은 항일 투쟁의 수단으로 동맹 휴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탄압하는 친일 교원을 배척하고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학업을 거부하였다.

1931년 정행돈 선생은 항일 동맹 휴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최재경과 결혼 (1931.5.17)



1930년대 대구형무소

1932년 4월 정행돈 선생은 고향에서 말형이 설립한 동창학원(同昌學院)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창기(李暢基), 이두석(李斗錫), 박몽득(朴夢得), 박형동(朴亨東), 방하영(方夏永) 등의 동지들과 함께 왜관 청년동지회를 조직, 독서회 명목의 비밀 결사 성진회(攄進會)를 통하여 농촌 계몽, 한글 강습, 민족의식 교육을 하다가 1938년 2월 19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3년 1개월 동안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1941년 3월 7일 대구지방법원의 면소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옥중 투쟁을 하였다.



석방된 후 가족과 함께 (1941)



석방된 후 조카와 함께(1941)



1945년 5월 15일 친필

8.15해방 3개월 전에 조국 광복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감개무량하여 왜관 성당 계단에서 찍은 사진에 “광복을 내다보면서”라고 써넣었다.



순심교육재단에 기부한 과수원



순심중학교초창기 붉은 벽돌 건물



가족과 함께 (1953)



폭격으로 폐허가 된 왜관 시가지



6.25전쟁이 남긴 총탄 자국

1950년 10월 2일 학교 일지:
“지난 8월 3일 소개령으로 인하여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학교를 뒤로 두고 모든 직원들은 뿔뿔이 해산된 채 남으로 남으로 피난의 길을 떠났더니, 만 2개월만인 오늘 전황의 호전으로 다시 우리 학교를 찾게 되어 감개무량! 심회를 표현할 길이 없도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파괴의 참상을 목도하는 쓰라린 심정, 복구의 길? 재건의 힘? 어디서 다시 우리 순중의 옛 모습을 찾아 얻을 소냐! 오호 민족의 비극, 전란의 참화여!”



복구를 지원한 미공병 대령과 함께 (1951)



교황사절구토마스주교 학교방문 (1953)



교사 증축 공사 (1954)



순심중학교 5대 교장 정행돈 선생 (1950-1961)
순심고등학교 초대 교장 겸임 (1952-1955)



순심고등학교 신축 낙성식 (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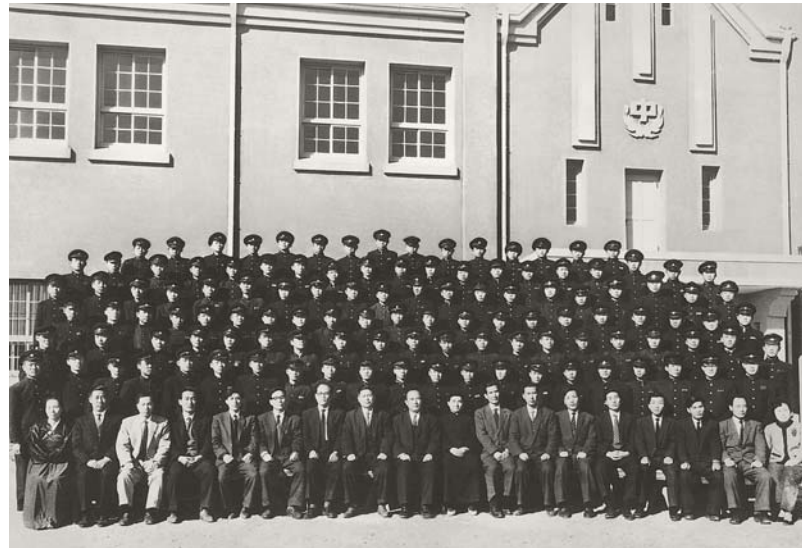
순심고등학교 초창기 건물 (1954)



교사 증축 공사 (1955)



순심고등학교 3회 졸업식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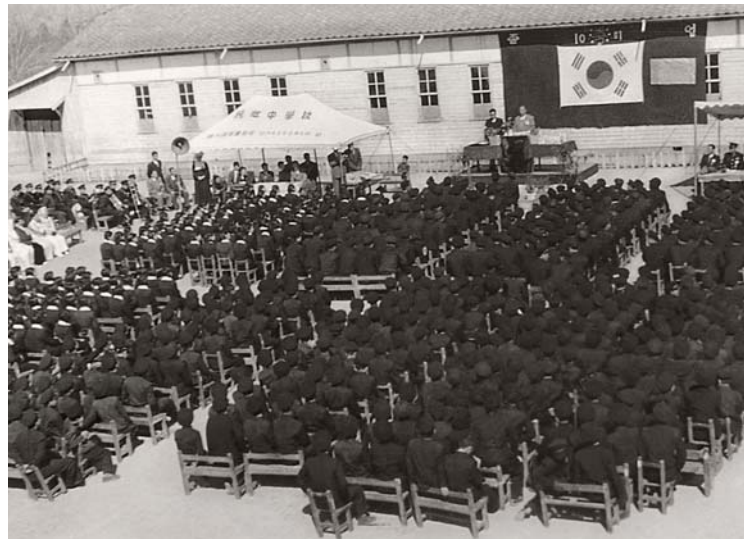
순심중학교 12회 남자 졸업생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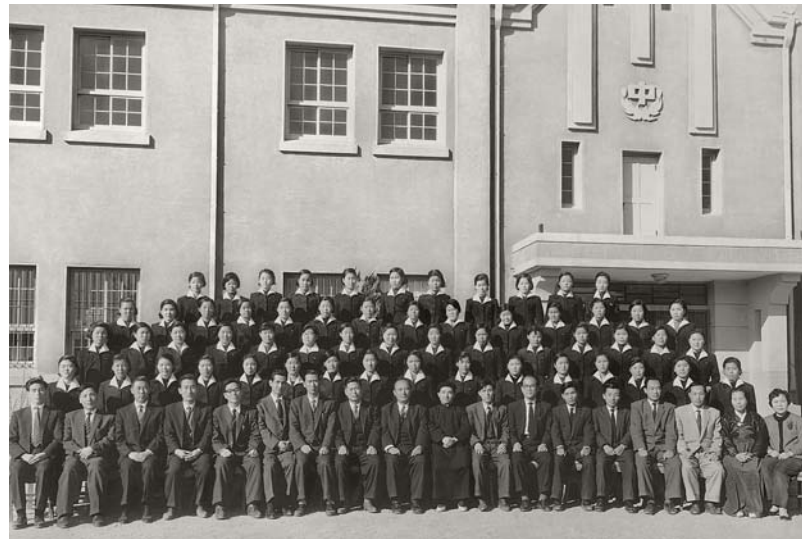
1955년 광복절



명성고등국민학교 1회 졸업식 (1967)



순심중학교 9회 졸업식 (1957)



순심중학교 12회 여자 졸업생 (1960)



정행돈 선생 부부 한센인 마을 봉사(1956)



명성고등국민학교 1회 시상식 (1967)



창마묘지에 십자가와 제단 건립 (1967)



교황대사 로톨리 대주교 영접 (1968)



창마묘지에서 미사 거행 (1967)



칠곡군 테니스 대회 개최 (1969)



정행돈 선생 부부 (1997)



정행돈 선생 장례 미사 (2003.8.22)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정행돈 최재경 합장묘



칠곡군 애국동산 형제 애국지사 추모비



애국지사 정행돈 선생 추모비



국립대전현충원 장례식 (2003.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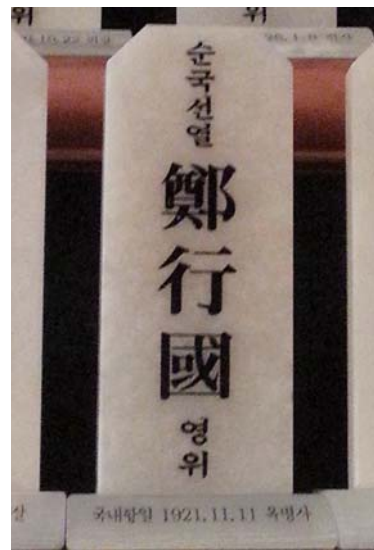
애국지사 정행국 선생 추모비



예관 애국지사 정행국 정행돈 추모공원



순국선열 위패가 안치된 서울 독립관



서울 독립관 정행국 선생 위패



대구 범물묘원 정행국 선생 묘



동창학원 옛터에 세워진 시문장학회관



시문장학회관 모자상



서울 독립관 내부

정재문 선생의 장남 정행국(鄭行國 字 榮秀 1896-1921) 선생은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자, 1914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젠다오 지역과 지린성 창춘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 5월 귀국, 왜관청년회를 조직하고 동창학원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1921년 10월 왜관청년회가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나의 조국은 죽지 않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같은 달 12일 순국하였다. 1991년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고 위패가 서울 독립관에 안치되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사진은 없다.



동창학원 비석



시문장학회관 내부



가실 성당 스승예수공원



스승예수공원 예수상

가실 성당 종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내 이름은 안나이다. 프랑스인 선교사 여동선 신부가 나를 봉헌하였고 대구 교구장 안세화 주교가 나를 축복하였으며 내 대부는 정 안드레아이다. 많은 사람이 내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정 안드레아는 정재문 선생의 세례명이다.



왜관 공소터 착한 목자상



설정 60년 후의 창마묘지